



清掃夫 없는 世界 第一의 研究所 研究員의 피나는 努力으로 基盤 굳혀

玄 信 圭 博士
科總 副會長 · 서울農大 教授

1950년 12월 24일 農科大學 先生 家族들과 같이 後退命令에 依하여 한 大型 트럭에 실은 枓란 짐짝 사이에 끼어서 釜山을 向해 出發하였다. 그날 밤 늦게 釜山에 到着한 나는 東來에 있던 道林業試驗場 宿舍 一隅에 家族 一同과 居處를 定하고 나니 突然 美大使館으로부터 1월 6일 비행기로 美國으로 떠나라는 連絡이 왔다. 美國務省의 交換計劃에 依한 초청이었다.

家族과 周圍의 권고에 依하여 家族의 運命을 하늘에 맡기고 美州에 가서 落着된 곳이 바로 California 주 Placerville에 있는 森林遺傳研究所 (Institute of Forest Genetics)이다.

이 研究所는 林木 特히 松類의 交雜育種에 關하여 集中的으로 研究하는 世界 唯一인 同時에 第一이 되는 研究所이다. 1925년 西部 森林地帶에서 木林商을 하여 돈을 모은 Mr. Eddy가 一平生 나무를 伐探한 罪값을 갚기 위하여 當時에 有名한 育種家 Luther Burbank와 相議한 結果 私財를 投入해서 設立한 것이 이 研究所의 出發이다. 그러나 이 研究所가 擴張됨에 따라서 個人的 財力으로서는 運營할 수 없음을 알고, 1936년에 이 기관을 國家에 기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美 山林局 直屬의 研究機關이 되었다. 그 후 世界的인 木材飢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林木育種分野에서는 名實 共히 世界第一의 研究機關이 된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各種 研究事業을 보고 驚嘆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나는 내 一生에 있어서 山 教訓으로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하루 아침 내가 있는 방문을 knock하고 들어온 同 研究所長 R.F. Righter 박사는 아침 人事에 이어서 自己들이 育種한 소나무 品種을 試驗植栽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勿論 가겠노라 하고 같이 뒷뜰에 나가니 벌써 沓트럭에다 나무를 가득 싣고 있었으며 運轉臺에는 研究所次席인 Dr. J. Duffield가 타고 있었다. 所長 Righter 박사가 몸소 運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앉고 내 옆에 Dr. Duffield가 앉아서 오전 9시에 出發, Highway에 나가서 60마일의 速度로 正午 때까지 달렸다.

간단한 點心 요기를 하고 다시 트럭을 타고 Highway에서부터 한적한 山속 길을 한시간 나마나 달렸다.

나는 달리는 車 속에서 생각했었다. 世界 第一 가는 研究所이니만큼 시험식재지에 간다면 그곳에는 벌써 기계로 심을 구덩이를 모두 파 놓고 우리가 도착되는대로 순식간에 나무를 심어 버리고 그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노루가 뛰쳐 나오고 이름 모를 새들이 놀라 달아가는 산골 길을 구비구비 돌아서 한시간만에 現場에 到着하니 그곳에는 인적이란 하나도 없고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한 곳이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이도 없이 所長과 次席은 운전대에서 뛰어내려 트럭 문을 열고 장대 같이 길다란 자루가 달린 쇼벨을 꺼내 들고 거리를 재가면서 심을 구덩이를 몸소 하나 둘 파 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안이 병병한 채 그냥 구경할 수도 없어 뒤에 가서 내 키보다 더 큰 자루가 달린 쇼벨을 꺼내 들고 한 구덩이를 파기 시

작했다. 넓이와 깊이가 각각 80cm나 되는 구덩이를 하나 파고 나니 손바닥에 콩알이 부풀어 오른다. 그들이 들 셋 팔 때에 나는 겨우 한 구덩이를 파는 비율이다. 손바닥에 생긴 콩알이 터져서 아리기는 勿論, 生前 처음 해 보는 힘든 일이 되어서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곳이 미국이라면 이런 일은 없을 터인데 내가 혹시나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非正常的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날 날이 저물어 어두어질 때까지도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Highway까지 다시 나가서 Hotel에서 자고 다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다시 가 그날 正午까지 겨우 십은 일을 끝냈다.

500本에 不過한 苗木이었지만 깊은 구덩이에 한 나무 한 나무씩 조심스럽게 심고 난 후 냇가에 가서 양철통으로 물을 퍼다 붓고 나니 시간이 意外로 많이 걸린 셈이다. 온갖 造木에 關한 기계가 發達되어 있고 時間을 무섭게 아끼는 그들이 도대체 이렇게도 無理한 일을 왜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힘에 겨운 勞役으로 거의 녹초가 된 나의 가슴 속에 물길처럼 솟아 올라와 돌아가는 트럭 운전대에 다시 몸을 싣고 떠나려 할 때 나는 所長 Righter 박사에게 물어 보았다.

“이런 일은 人夫을 시켜서 해도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당신들이 몸소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런 나의 질문을 받은 Righter 所長은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는 試驗研究를 하는 사람인데 시험 연구를 가장 正確하게 하는 길은 自己가 몸소 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이 研究所가 世界의 第一 가는 研究所가 된 까닭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놀라움과 부끄러운 心情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함을 느꼈다.

그 후 나는 約 9개월 간 上記의 研究所에 滞在하는 동안 또한번 큰 衝動을 받은 일이 있다. 그 研究所에 가서 2~3일을 지내 보아도 事務

室에 給仕도 없고 小便도 없고 清掃夫도 없음을 보고 極 異常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던 中 金요일 아침(土, 日 兩日은 公休)이 되니까, 出勤 시간 오전 8시보다 약 30분 일찍들 나왔다. 그 날 아침 나는 여전히 내 事務室에 들어가 있는데 좀 있더니 職員 한 사람이 비를 들고 내 방에 와서 “군모닝 하우스유”라는 人事를 하면서 들어오더니 구석에서부터 비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왜 내 방을 쓰느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清掃日이므로 우리들이 清掃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惶悚해서 얼른 비를 하나 찾아 들고 돌아와서 내 방은 내가 清掃할 터이니 제발 나가 달라고 내쫓고 清掃을 한 후 廊下에 나가 보니 온 職員들이 總動員하여 事務室, 實驗室, 倉庫로부터 뜰까지 모두 清掃을 하느라고 야단들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研究所에 있는 1개월 동안 每 金요일마다 職員들과 더불어 清掃夫 노릇을 하였던 것이다.

勿論 一週日이 다 가도 테이블 위에 먼지가 앉는 줄 모르리만큼 清掃하는 일이 힘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平相時에 있어서 어떤 관청이나 會社에서 직원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러한 現實을 美國에서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일이었다. 너무도 이상하여 하루는 所長에게 이 研究所에서도 왜 직원들이 직접 清掃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清掃夫에게 주는 돈을 우리의 研究費에 돌려서 쓰기 爲함이라는 것이었다. 美國의 國立이며 世界的인 研究所가 豫算이 不足한 것도 아니련만 月額 500여불에 불과한 돈이라도 절약해서 研究費에 쓰기 爲해 몸소 清掃을 한다는 일이 또 어느 나라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이 研究所로 하여금 斯界에서 世界의 第一 가는 研究所가 되게 한 것은 그 研究所의 施設の 完備와 出衆한 것보다도 熱과 誠과 奉仕的 정신이 그 研究所를 運行하는 動力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